

# 군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 변화와 군선교에 대한 혼합연구

Mixture analysis on the change occurring in the army and strategy on  
military missions

김성훈(연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sup>1)</sup>

## 요약

이 연구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종교 변화에 관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조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62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 시점은 병사가 소속부대로 진입한 이등병 시점과 6개월 단위로 일병, 상병, 병장 시점에 각각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군 생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군선교 전략은 시대에 따라 정책적으로 적절히 진행되어 왔지만 장병들을 대상으로한 직접 조사를 하여 정책을 제시한 전략은 미비하였다. 특히 종교 변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2년동안 병사를 추적하여 종교 변화를 일으킨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포함하는 혼합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대다수는 무종교 또는 기독교를 유지하였다. 비종교에서 기독교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적었다. 둘째, 양적연구에서는 무종교에서 기독교로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각 부대의 기독교인 비율과 훈련의 양으로 밝혀졌다. 셋째, 질적연구 측면에서, 무종교에서 기독교로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은 교회 내 유대관계와 위안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혀졌다.

주제어:군선교전략, 종교변화, 로지스틱회귀분석, 혼합연구

---

1)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측정평가 전공 박사수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I. 서론

한국교회가 젊은이 선교의 중요한 방안으로 군선교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시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육군훈련소 및 신교대에서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어 기독교 신자로 입문하게 하는 초기전략과 훈련소 이후 소속된 부대에서 신자로서 정체성을 함양하는 중간전략과 마지막으로 전역 이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교회로 돌아가는 최종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군선교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초기전략인 훈련소와 신교대의 사역은 독특한 방안으로 인식되어 여러 논문에서 그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되어왔다(권오민, 2011; 남송현; 2007; 이석우, 2010). 물론 단체세례가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만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여 지금까지도 중요한 군선교 전략으로 이해되어왔고 정착되어 왔다.

신교대의 세례를 통한 선교전략 이후에 병사들이 소속 부대로 배치될 받고난 후 군선교는 작은 단위의 전략과 큰 단위의 전략이 함께 이뤄졌다. 작은 단위라 함은 해당부대의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뤄지는 전략이다. 즉, 예배, 성경공부등의 형태로 신앙 양육이 이뤄지고 담당 사역자들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함께 장병들을 전역 후 지역교회들로 연계하는 사역을 하였다. 큰 단위 전략은 비전2020, 전사인캠페인과 같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에서 이뤄지는 정책적 전략을 의미한다. 비전2020은 1996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972년의 '전군복음화운동' 이후 '전군 신자화후원회', '군복음화 후원회'를 거쳐 1999년부터 현재의 '군선교연합회'가 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을 진행되어왔다(오덕교, 2004).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비전2020 전략은 기대했던 소기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따라 전사인운동이라는 새로운 선교전략이 수립되었다. 전사인운동은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대 사고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기독교 실천 운동이다. 이러한 군선교 전략은 비전2020에서 전사인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양적 전략에서 질적 전략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선교가 과연 젊은이의 종교 선택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종교비율을 종단조사를 통해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군대내 기독교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교회사역과 군선교 정책은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신 사역자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대략적이며 체감적인 변화를 감지하여 우리의 군선교가 현재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식의 희망적인 호소를 한국교회에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반해 김성훈(2016)은 전국단위로 수집된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역으로 군을 전역한 장병들의 종교에 따른 군 생활과 신앙 요인들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군선교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기독교 청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교회와 선교단체의 혁신을 통해 예배와 신앙 모임등이 강화되어 개인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관을 형성하고 군에는 병영문화혁신을 선도하는 건전한 장병을 육성하는 군선교를 지향하는 21세기형 군 선교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2) 2020년에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려는 계획이나 현재 기독교 비율은 그에 못미치는 현실이다. 갤럽 종교조사(2015)에서 종교비율은 1984년 17%, 1989년 19%, 1997년 20%, 2004년 21%, 2014년 21%이다.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2020년이 4년이 남은 현 시점에서 75%를 신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장병들에게 군선교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더욱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이유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군선교 전략이 더욱 현실성 있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성훈(2016)의 연구도 데이터의 특성상 장병들의 종교 변화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군선교 현장은 2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장병들이 종교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소속 부대 내에서의 종교 변화와 유지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군복무 가운데 장병들의 종교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군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혼합연구로 진행하였다.

첫째, 양적연구의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지난 2년간 장병들의 종교 변화를 추적조사하여 입대에서 전역전까지 종교가 어떻게 변화 혹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양적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장병들의 종교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행하였다.

셋째, 질적연구에서는 장병들의 종교변화 혹은 유지를 하게 되는 이유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종교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착안점을 살펴본다.

## II.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복잡한 현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방법으로 탐색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적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적인 방법인 질적 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유도된 핵심요소에 질적 보완요소를 갖춘 혼합방법설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Morse & Niehaus, 2012).

### 1. 연구 대상

#### (1) 양적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공병여단의 현역 장병 362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자는 2014년 7~12월 사이에 1공병여단으로 전입 온 장병들이며 2015년 4월, 10월 그리고 2016년 3월에 걸쳐 총 4회 조사되었다. 즉, 이것은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의 각 시점마다 조사를 한 것으로 장병들의 군 생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수집된 자료이다. 물론 이 연구가 1공병여단의 제한적인 대상자만을 분석한 것임으로 전부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종단자료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조사로 볼 수 있으며 차후의 전군단위를 고려한 본 조사를 위한 파일럿 조사로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급 시점별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연구결과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 (2) 질적 연구 대상

1차 양적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362명 중에서 종교가 변화하였거나 처음 종교가 그대로 유지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내용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들 중에 16명 심층면담 대상자는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된 병사 8명,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된 병사 8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응답사례들은 연구자에 의해 내용주제별로 부호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범주화되었다.

## 2. 변수 설명

###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선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종속변수는 4시점에 따른 종교의 변화와 유지이다. 매시점마다 종교를 조사하여 개인에 따라 변화를 살폈다. 무교에서 무교로 유지되는 것, 무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되는 것,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것을 각각 분석내용에 따라 0과 1로 코딩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이분문항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심리변수로 자존감, 삶의 의미, 절망감을 활용하였다. 개인심리변수는 권창모·김성훈(2014)의 연구에서 적용한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부대의 종교현황변수로 부대 내 기독교인 비율과 지휘관종교이다. 세 번째는 부대의 일반현황으로 병사들의 직접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소부대훈련정도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표 1>에 기록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 변수         |             | 변수처리                          |  |
|------------|-------------|-------------------------------|--|
| 종속변수       | 무교→<br>무교   | 분석1,2에서<br>0으로 처리됨            |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각 시점에 대하여 무교로 시작하여 무교로 변화 없이 조사된 경우  |
|            | 무교→<br>기독교  | 분석1에서 1로<br>처리됨               |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각 시점에 대하여 무교로 시작하여 기독교로 변화된 경우       |
|            | 기독교→<br>기독교 | 분석2에서 1로<br>분석3에서는<br>0으로 처리됨 |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각 시점에 대하여 기독교로 시작하여 기독교로 변화없이 조사된 경우 |
|            | 기독교→<br>무교  | 분석3에서 1로<br>처리됨               |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각 시점에 대하여 기독교로 시작하여 무교로 변화된 경우       |
| 개인심리<br>변수 | 자존감         | 자존감 10개 문항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  |
|            | 삶의의미        | 삶의 의미 16개 문항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  |
|            | 절망감         | 절망감 10개 문항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  |

|            |       |   |
|------------|-------|---|
| 부대<br>종교변수 | 기독교비율 | 조사대상의 소속 부대 기독교 비율(%)                     |
|            | 지휘관종교 | 기독교=1, 그외=0                               |
| 부대<br>훈련변수 | 소부대훈련 | 부대 훈련 정도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1=매우 적음, 5=매우 많음) |

### 3. 양적 연구 분석방법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선택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장병들의 종교 변화와 유지에 대하여 참조변수와 비교분석하였다. 세 번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는데 분석1은 무교에서 무교로 유지되는 것을 0으로 하고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것을 1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2는 무교에서 무교로 유지되는 것을 0으로 하고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되는 것을 1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3은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되는 것을 0으로 하고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것을 1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을 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ln\left(\frac{p_i(Y_i = 1)}{1 - p_i(Y_i = 1)}\right) = \beta_0 + \beta_1 F_i + \beta_2 S_i + \beta_3 X_i$$

$p_i(Y_i = 1)$ 는 분석1에서는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 분석2에서는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 분석3에서는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됨.

$1 - p_i(Y_i = 1)$ 는 분석1과 2에서는 무교에서 무교로 유지됨, 분석3에서는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됨.

F는 개인심리변수를 나타내는 벡터(자존감, 삶의의미, 절망감)

S는 부대내 종교현황을 나타내는 벡터(부대내 기독교인 비율, 지휘관종교)

X는 부대의 일반현황을 나타내는 벡터(소부대훈련)

위 분석을 통해서 군선교의 초·중기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소속 부대에서 신앙활동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영향요인과 전역 시점까지 기독교를 유지한 요인들을 통해 전역 후에도 기독교로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4. 질적 연구 분석방법

### (1) 개별면담

연구자가 16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실시하였고, 면담은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소는 교회, 상담실, 북카페 등이다. 1회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내외이며, 개인별로 1회 실시되었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내용은 일상적인 부대 이야기를 포함하여 종교의 선택에 대한 변화와 유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자유스러운 대화형태의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대일 개별 면담이었다. 연구자가 면담이 끝난 직후에 면담의 주요 이야기를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2) 질적 자료 해석과정

군생활 가운데 종교의 유지 및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쳤다. 전체 분석은 총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자료를 요약하는 단계에서 연구자가 질적 사례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원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하였다. 두 번째, 자료를 조직하는 단계에서 연구자가 수집한 질적 사례를 코딩하고, 핵심단어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 종교의 유지 및 변화를 경험한 장병들이 겪은 문제에서 2인 이상이 언급한 공통된 에피소드별로 정리되었다. 이 문장에서 씬, 성장, 긍정, 동료, 임무 등과 같은 감정이나 특징들이 핵심 단어로 정리되었다. 핵심단어를 토대로 주요개념을 찾고 다시 주요 개념들을 범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범주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생각과 해석, 견해가 메모되었다.

## III. 분석 결과 및 해석

### 1. 종교의 변화 추이

이등병에서부터 병장에 이르기까지 연구 대상자들의 시기별 종교를 통하여 장병들의 종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4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조사대상 병사들의 종교변화 추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이 전국단위의 모집단을 바탕으로 조사된 표본은 아니기 때문에 표본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년간의 지속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일부분이지만 변화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군 종교 전수 조사의 기록에 비추어보면 대략적으로 전체 종교가 있는 비율은 48.3%, 무교가 51.7%이다<sup>3)</sup>. 전체 종교와 무종교의 비율은 전수조사와 이 연구가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무교를 제외한 종교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독교 54.30%, 불교 26.93%, 천주교 17.96%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의 이등

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 40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1), 65.

|       | 총계                | 종교장별                |                   |                    |                  |                | 무종교장별              |
|-------|-------------------|---------------------|-------------------|--------------------|------------------|----------------|--------------------|
|       |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 기타             |                    |
| 2011년 | 653,000<br>(100%) | 171,245<br>(26.22%) | 56,627<br>(8.67%) | 84,925<br>(13.01%) | 1,359<br>(0.21%) | 126<br>(0.19%) | 337,628<br>(51.7%) |

병 시점에서는 기독교가 67.80%, 불교가 15.25%, 천주교가 16.95%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종교를 가진 이들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전에 실시되었던 전수 조사와 이 연구의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도 있으며 초기에 언급한 대로 이 연구는 전국단위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향된 조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소속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것으로 이등병때에는 전입신병 교육 전에 조사가 되었고 일병, 상병, 병장은 전체 부대 단위조사로서 진행이 되었으므로 다른 병사가 대신 입력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개인이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이등병 시점에서 일병, 상병, 병장으로 변하면서 종교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등병에서 일병과 상병시점에 가면서 무교가 소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초기 신병교육대 등을 통해 활발한 종교활동에 의해 종교를 가졌지만 소속부대에서는 다양한 임무에 노력하게 되고 조금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다소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병장이 되면서는 다시금 초기의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는 늘어나고 무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종교변화

| 종교(빈도,%) | 이등병(1시점)  | 일병(2시점)   | 상병(3시점)   | 병장(4시점)   |
|----------|-----------|-----------|-----------|-----------|
| 기독교      | 120(33.1) | 112(30.9) | 110(30.4) | 118(32.6) |
| 불교       | 27(7.5)   | 23(6.6)   | 24(6.6)   | 22(6.1)   |
| 천주교      | 30(8.3)   | 32(8.9)   | 31(8.6)   | 31(8.6)   |
| 무교       | 185(51.1) | 194(53.6) | 197(54.4) | 191(52.7) |
| 합계       | 362       | 362       | 362       | 362       |

<표 3>은 최종적으로 이등병시점에서 가진 종교가 병장시점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변화 혹은 유지를 조사하였다. 이등병에서 무교였던 병사가 병장이 되어서도 무교인 수는 157명이며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유지된 병사는 99명이다. 그리고 종교가 변한 것은 이등병시점에서 무교였으나 소속부대에서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로 변한 병사는 17명, 이등병시점에는 기독교였으나 무교로 변한 병사는 19명이다.

<표 3> 분석대상자의 종교변화

| 종교변화분류 | 무교→무교 | 무교→기독교 | 기독교→기독교 | 기독교→무교 |
|--------|-------|--------|---------|--------|
| N      | 157   | 17     | 99      | 19     |

<표 4>는 네 가지 종교 변화 유형에 대한 자존감, 삶의 의미, 절망감, 소속 대대의 기독교비율, 지휘

관 종교, 소부대훈련정도 변수값을 살펴보았다. 자존감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한 집단이 제일 높고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낮았다. 이것을 단선적으로 교회 다니는 병사들이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삶의의미는 기독교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하는 집단이 높고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집단이 낮았다. 절망감은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이 높았고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하는 집단이 낮았다. 소속 대대의 기독교인 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이 제일 높았다. 지휘관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는 각 집단마다 유사하였으나 무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경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소부대 훈련정도는 기독교에서 무교로 바뀌는 경우에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표 4> 종교변화 유형의 변수 기술통계

|       | 무교→무교 |        | 무교→기독교 |       | 기독교→기독교 |        | 기독교→무교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자존감   | 41.05 | 6.217  | 42.06  | 7.066 | 40.49   | 6.280  | 43.69  | 5.872  |
| 삶의의미  | 54.90 | 11.104 | 54.38  | 8.648 | 55.33   | 10.736 | 55.34  | 13.552 |
| 절망감   | 17.52 | 7.339  | 17.13  | 7.293 | 19.39   | 7.551  | 17.06  | 6.773  |
| 기독교비율 | 25.57 | 3.139  | 24.49  | 2.581 | 26.54   | 3.231  | 24.58  | 2.770  |
| 지휘관종교 | .08   | .276   | .00    | .000  | .07     | .258   | .06    | .232   |
| 소부대훈련 | 3.96  | .913   | 4.38   | .619  | 3.94    | .923   | 4.44   | .619   |

## 2. 양적 연구에 따른 종교 변화 설명요인

종교 변화에 따른 개인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 특성들이 종교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종교 변화에 따라 3가지 비교 분석 집단으로 나누었다. 분석1은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집단의 비교, 분석2는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의 비교, 분석3은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의 비교를 하였다. 분석1은 소속 부대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로 장병들을 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2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병사들과 기독교를 가진 병사들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분석3은 기독교였다가 무교로 바뀌는 병사들의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석1 :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는 무교유지 집단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과 소부대훈련 정도이다. 기독교 비율은 1의 값이 증가할 때 마다 무교에서 기독교로 갈 승산이 1.206배이다. 즉 소속대대가 기독교비율이 높을수록 무교인 장병이 기독교로 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부대훈련을 살펴보면 훈련이 많을수록 무교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



다. 승산비로 보면 훈련이 더 강해질수록 무교가 기독교로 변할 확률은 감소하고 그 비율은 0.807배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기독교비율은 무교인 장병이 기독교로 변할 확률을 높여주며 훈련이 많을수록 무교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5> 분석1 결과 :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       | 로그승산(무→무 vs 무→기)   |       |       |     |      |        |
|---------|-------|--------------------|-------|-------|-----|------|--------|
|         |       | B                  | S.E.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상수    | -1.824             | 3.723 | .240  | 1   | .624 | .161   |
|         | 자존감   | .069               | .080  | .732  | 1   | .392 | 1.071  |
| 개인심리변수  | 삶의의미  | -.039              | .036  | 1.196 | 1   | .274 | .962   |
|         | 절망감   | .019               | .051  | .145  | 1   | .703 | 1.019  |
| 부대 종교변수 | 기독교비율 | .216*              | .110  | 3.340 | 1   | .048 | 1.206  |
| 부대 훈련변수 | 소부대훈련 | -.741 <sup>†</sup> | .402  | 2.692 | 1   | .090 | .807   |

<sup>†</sup>p<.1 \*p<.05 \*\*p<.01 \*\*\*p<.01

나. 분석2 : 무교와 기독교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표 6>은 무교유지 집단과 기독교유지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절망감과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이다. 절망감은 1점 증가할 때 마다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038배 높았다. 그리고 기독교 비율은 1의 값이 증가할 때 마다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05배 높았다.

<표 6> 분석2 결과 : 무교와 기독교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

|        |       | 로그승산(무→무 vs 기→기)  |       |       |     |      |        |
|--------|-------|-------------------|-------|-------|-----|------|--------|
|        |       | B                 | S.E.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상수    | -5.040*           | 2.134 | 5.576 | 1   | .018 | .006   |
|        | 자존감   | -.001             | .038  | .001  | 1   | .977 | .999   |
| 개인심리변수 | 삶의의미  | .018              | .018  | 1.020 | 1   | .313 | 1.018  |
|        | 절망감   | .043 <sup>†</sup> | .026  | 2.819 | 1   | .093 | 1.044  |
| 부대     | 기독교비율 | .116*             | .054  | 4.545 | 1   | .033 | 1.123  |
| 종교변수   | 지휘관종교 | -.700             | .587  | 1.424 | 1   | .233 | .496   |
| 부대     | 소부대훈련 | -.039             | .164  | .056  | 1   | .812 | .962   |

훈련변수

†p<.1 \*p<.05 \*\*p<.01 \*\*\*p<.01

즉 절망감이 다소 높은 병사일수록 자신들의 절망감에 대한 도움과 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소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기독교를 계속 유지하는 장병들이 절망감이 낮은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단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기독교를 계속 유지하는 장병들은 다소 절망감이 있을 때 종교적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속대대가 기독교비율이 높을수록 기독교로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이것은 앞의 영향과 비슷한 것으로 소속부대의 기독교비율은 장병들의 기독교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절망감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유지하게 하며 기독교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다. 분석3 :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은 기독교유지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과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 그리고 소부대훈련이다. 자존감은 1점 증가할 때 마다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27배 높았다. 그리고 소속 대대의 기독교 비율은 1의 값이 증가할 때 마다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비해 0.770배 낮았다. 또한 소부대훈련이 1단계 높아질수록(훈련을 더 많이 할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할 승산비율이 1.985배 높았다.

즉 자존감이 다소 높은 병사일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였다.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볼수는 없고 도리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을 의지하는 면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높을 수 있다는 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속대대가 기독교비율이 높을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기 보다는 기독교로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이것은 앞의 분석1,2와 비슷한 결과로 소속부대의 기독교비율은 장병들의 기독교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소부대훈련은 분석1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훈련의 강도가 강하며 많을수록 장병들은 기독교를 가기 보다는 무교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것을 정리하면 자존감이 높고 소부대훈련이 강하고 많을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를 선택하게 되며 기독교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표 7> 분석3 결과 :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 로그승산(기→기 vs 기→무) |       |      |     |      |        |
|----|------------------|-------|------|-----|------|--------|
|    | B                | S.E.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상수 | -1.211           | 3.631 | .111 | 1   | .739 | .298   |

|         |       |                     |       |       |   |      |       |
|---------|-------|---------------------|-------|-------|---|------|-------|
| 개인심리변수  | 자존감   | .120 <sup>†</sup>   | .067  | 3.157 | 1 | .076 | 1.127 |
|         | 삶의의미  | -.029               | .026  | 1.212 | 1 | .271 | .972  |
|         | 절망감   | .028                | .046  | .360  | 1 | .548 | 1.028 |
| 부대 종교변수 | 기독교비율 | -.261 <sup>**</sup> | .086  | 9.272 | 1 | .002 | .770  |
|         | 지휘관종교 | .985                | 1.008 | .954  | 1 | .329 | 2.678 |
| 부대 훈련변수 | 소부대훈련 | .686 <sup>*</sup>   | .341  | 4.050 | 1 | .044 | 1.985 |

†p<.1 \*p<.05 \*\*p<.01 \*\*\*p<.01

### 3. 질적 연구에 따른 종교 변화 분석

앞선 연구에서는 군 복무 중 종교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되거나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은 본인의 종교가 입대 전과 신교대 등에서는 무교였으나 자대 배치를 받고 군복무를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발견하여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과 입대 전과 신교대에서 기독교였지만 군복무를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무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장병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군생활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종교의 변화를 보이게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1)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

##### ① 편안함

군에 오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급격한 변화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해소해줄 편안한 분위기를 찾아서 종교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특히 기독교의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자신들에게 이전에 줄 수 없었던 편안함을 제공받고 이를 통해 쉼을 얻게 된다. A병사는 이것을 강조하였다.

군대에 와서 호기심가지고 다니다가 여단에 오니 교회를 오는 것이 좋았다. 특히 마음 놓고 들을 수 있어 가게 되었다... (A병사)

신교대에서 기독교 나가면서 교회를 선택하게되었다. 사회에선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오니 재밌기도 하고 마음도 편해졌다... (B병사)

병사들에게는 많은 과업이 주어진다.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하루의 일정과 그에 맞추어 생활하면서 어느 하나 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간혹 주말에도 이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병사들은 자신들의 쉼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원한다.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 ② 긍정적 마음

군생활로 위축되어 있는 병사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 쉽다.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자존감등에 영향을 주어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군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되는 병사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며 그것을 통해 활동적인 군복무에 더욱 쉽게 적응하게 된다.

힘들 때 교회가서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군에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C병사)

기독교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무교처럼 생활하였죠. 그렇게 군에 와서 나랑 맞지 않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처음엔 쉬고 싶어 안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스트레스 받을 땐 교회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 다니고 있습니다...(D병사)

## ③ 함께하기

병사들은 자신의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군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단체 의식으로 인해 다른 이가 권유하거나 동참하는 것을 통해 종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생활관, 중소대에서 동기와 선임의 인도로 함께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사회에선 무교여서 주말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기독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동기를 따라 주말에 노래도 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E병사)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선임들이 우리 생활관 동기들에게 다 같이 가보라고 권유하면서 유익할거라고 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무의미한 주말보다 가서 있는게 좋은 것 같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F병사)

군인들에게 전우애, 동료애는 각별하다. 이러한 감정은 군생활을 통해 공동체의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전우애가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다. 두 병사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2)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

### ① 신앙성장이 안됨

교회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즉, 신앙이 성장하여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하지만 군교회를 나오는 장병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중간에 포기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심이 자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대에 전입할 때 선임따라 기독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다니면서도 신앙심이 생기지는 않아서 이후 교회를 가지 않았고 무교가 되었습니다...(G병사)

입대 전에는 부모님이 기독교여서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대생활하면서 믿는 것이 없어 진뻐하였고 무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H병사)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은혜롭고 영감있는 예배, 신앙의 기초를 성장하게 하는 신앙교육, 참여를 고무시키는 봉사활동등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노력이 교회에 필요하다.

### ② 주말에도 지속되는 임무

병사들은 소속 부대에 배치받고 난 후 모두 같은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주말에도 지속적인 일을 해야하는 병사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주말 예배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아닌 무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군대에 오면서 신교대에서 기독교를 갔는데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취사병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여 못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I병사)

이등병, 일병 때에는 종교활동을 기독교로 잘 참석 해왔는데 상병 이후부터는 주말 당직을 서게 되면서 교회를 거의 못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교가 된 것 같습니다...(J병사)

일명 격오지라고 할 수 있는 GOP근무, 경계근무등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과 반복적으로 주말에도 역할을 해야하는 병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소조단위 예배등을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역자들도 적은 수의 이러한 병사들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 할 수 있다.

### ③ 쉼의 필요

쉼을 얻기 위해 교회를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쉼이 필요해서 교회에 오지 않기도 한다. 주중에 지속된 훈련, 교육 등으로 병사들이 주말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관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시간이 오래되다보면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게 된다.

어릴 때 부모님이 기독교여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학생부터는 내 의지에 따라 아무것도 안 다녔습니다. 그래도 군에서는 기독교를 다녔지만 점차 잘 나가지 않았고 아무 종교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인듯합니다. 쉽고 싶은 마음이 커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K병사)

입대할 때 기독교로 선택한 것은 부모님 기독교여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대 생활하면서 쉬는게 더 좋아서 종교활동을 가지 않습니다...(L병사)

이처럼 병사들이 기독교를 초기에는 선택하였으나 군 복무가운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한다. 정책적으로 전략 수립이 가능한 것도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 가운데 장병들의 종교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군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공병여단 현역 장병 362명을 대상으로 종교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 시점은 병사가 소속부대로 전입은 이등병 시점과 6개월 단위로 일병, 상병, 병장 시점에 각각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군생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군선교 전략은 시대에 따라 적절히 제시되어 왔으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한 연구로 정책을 제시한 전략은 미비하였다. 김성훈(2016)은 KEEP의 종단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 연구도 장병들의 종교 변화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군선교 현장은 2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장병들이 종교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교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여 2년간의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종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두 가지 연구를 혼합연구로 진행하였다. 양적연구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한 추세를 살펴 종교 변화를 확인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장병들의 종교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적연구에서는 장병들의 종교변화 혹은 유지를 하게 되는 이유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교를 유지하는 병사의 수와 기독교를 유지하는 병사의 수가 각각 157명, 99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수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수는 17명,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들의 전체적인 수는 적을 수 있지만 이들의 변화를 통해 전도 가능 대상을 가능해볼 수 있다. 즉, 어떻게 해서라도 종교를 바꾸지 않는 병사들은 157명이나 되는 반면에 전체 조사 대상 362명 중에 36명 정도인 10%는 종교가 바뀌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많은

비율로 기독교를 유지 혹은 전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종교변화에 대한 설명요인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집단의 비교에서 소속부대의 기독교비율, 소부대훈련이 각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비율이 높을수록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며 훈련이 많을수록 무교를 유지하였다.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은 절망감과 기독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절망감이 높은 병사일수록 기독교를 유지하였으며 기독교비율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유지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을 비교하면 자존감과 소부대훈련, 기독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자존감이 높고 소부대훈련이 강하고 많을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를 선택하게 되며 기독교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셋째,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본 종교의 변화요인은 다음과 같다.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기독교를 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긍정적인 마음, 함께하기가 나타났다. 병사들은 큰 변화를 겪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기독교를 통해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기독교를 통한 긍정적인 마음의 함양이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였다. 그리고 동기, 선후임들과 함께 종교행사를 참석하는 것이 높았다. 즉, 군대는 공동체성을 함양시키는 조직인데 종교를 선택하는 면에서도 주변인들과 함께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무교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 주말에도 지속되는 임무, 쉽의 필요로 볼 수 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말에도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이들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종교를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주중의 많은 일과들로 인해 지친 병사들이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군선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에 대한 군선교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 무교를 유지하는 병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교에서 기독교 혹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되는 병사가 10% 정도 됨으로 이들에 대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군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기에 한 부대의 조사로 종교변화의 가능성 정도를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조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전국단위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년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실제로 장병들의 변화를 분석한 것임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우리 군선교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속부대의 기독교비율에 따른 전략적 군선교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는 장병들 소속부대의 기독교비율이 높을수록 병사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질적연구에서도 동기 혹은 선후임 병사들과 함께하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계속 다니게 됨으로 기독교비율은 두 연구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서 선사인 운동의 필요성과 시사점이 제공된다. 선사인 운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믿음을 갖도록 하는 운동으로 이러한 기독교 운동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동료를 따라 기독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으로 선사인 운동이 성공적으로 장병들에게 자리 잡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독교

교 비율이 높은 중대 혹은 대대는 더욱 투자하여 기독교를 더욱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반대로 기독교 비율이 낮은 중대, 대대는 상대적으로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대도 포기하지 말고 선샤인 운동에 한명이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비율이 높은 중·대대는 더욱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분명 더 많은 장병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인의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자존감과 절망감의 영향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자존감은 기독교를 유지 혹은 선택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절망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병사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종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종교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서경환, 정성진과 구지현(2005)의 심리요인과 영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신앙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은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Donahue와 Benson(1995)의 연구에서는 영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친사회적행동을 일으키고 자살 등의 비행행동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반해 종교의 부정적 영향도 주장하는 연구에서 종교성은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낳는다는 주장도 있다(Hunsberger, Alisat, Pancer, & Pratt, 1996). 즉, 이 연구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을 탈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자존감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유지 혹은 선택하지 않는 경향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기독교가 아닌 무교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적응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지속되는 절망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교적 치료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교육과 설교 등에서도 자존감을 마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하나님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임을 제시해준다면 장병들은 더욱 기독교를 선택하고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편안함과 긍정적 마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질적연구를 통해서 장병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으로 교회 오는 것이 다른 곳에 있을 때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은 중요한 전략 지점이다. 예배자체가 주는 영적 편안함과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편안함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군인 간부 신자들이 주는 인간적인 환대와 병사들 상호간에도 교회에서만은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더욱 교회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병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해서도 이러한 긍정적 마음을 함양하고 신앙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되는 것이 병사들의 기독교 선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훈련으로 인해 생기는 기독교의 이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군인에게 있어 교육훈련은 중요한 활동이다. 훈련을 통해서 실제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에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이 강화될수록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고 무교로 주말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쉼의 필요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장병들이 주중의 과도한 훈련 이후에 주말에는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훈련의 강화로 인해 주말에 쉼을 원하는 장병들을 위한 선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훈련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으로 도리어 그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말의 예배가 장병들의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배의 형식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장병들이



강도 높은 훈련이 있는 주간에는 예배 시간의 조정, 장병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전략, 예배의 틀을 더욱 편안히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일반화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연구대상자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집단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 일부부대에 한해서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표본집단이 전체성을 대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종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년간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의 질적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질적 자료 해석과정상의 한계점이 있다. 보조연구자가 필요하며, 자문 단계에서 질적 연구의 전문가에 의한 피드백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셋째,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군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훈(2016)은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통해 병사들에 대한 군선교 정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국 단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지만 정책의 수립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전군을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을 획득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와 함께 조사도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군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조사도구를 통해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훈(2015)은 군중장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표준화작업을 하였고 이를 통한 종단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준화 조사도구가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군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 변화와 군 선교에 대한 혼합연구에 대한 논평

홍상표(겨자씨교회 목사, 군선교교육원 강사)<sup>4)</sup>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필자에게 군 선교에 관한 귀한 연구자료를 읽고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독교학문연구회 관계자들과 이 논문을 쓰신 김성훈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교육학이나 군 선교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교회인 겨자씨교회를 목회하면서 군선교교육원에서 강사로 섬기고 있고 군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섬기는 중에 있는 것을 아시는 석종준사무국장의 도움으로 자격이 없지만 논평자로 요청받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논평자는 이 논문을 살피는 중에 한국군선교의 역사와 군 선교에 대한 전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한 변화되는 군선교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평자는 이 연구논문을 개략적으로 요약하고 특히 논문의 분석과 결과 및 해석에 관심을 갖고 몇 가지를 논평하고자 합니다.

4) 군선교연합회 군선교 교육원 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박사과정 수료. 겨자씨교회 담임

### 1. 군선교 종교 변화에 관한 전략

이 연구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종교 변화에 관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한 귀한 연구물입니다. 이 조사는 2014년 7월부터 201년 3월까지 362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조사의 시점은 병사가 소속부대로 전입 온 이등병 시점과 6개월 단위로 일병, 상병, 병장 시점에 각각 조사된 실제적인 자료입니다.

### 2. 군선교의 역사와 전략의 대한 개념

한국교회가 청년 선교의 중요한 방안으로 군 선교를 선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육군훈련소 및 신병대(신병교육대)에서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어 기독교 신자로 입문하는 초기전략과 훈련소 이후 소속된 부대에서 신자로서 정체성을 함양하는 중간전략과 마지막으로 전역이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교회로 돌아가는 최종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군 선교활동을 해왔다.

신교대(신병교육대)의 세례를 통한 선교전략 이후에 병사들이 소속 부대로 배치를 받고 난 후 군 선교는 작은 단위의 전략과 큰 단위의 전략이 함께 이뤄졌다. 작은 단위의 전략은 해당부대의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을 통하여 이뤄지는 전략이다. 즉, 예배, 성경공부 등의 형태로 신앙 양육이 이뤄지고 담당 사역자들이 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와 함께 장병들을 전역 후 지역교회들로 연계하는 사역을 하였다. 큰 단위 전략은 비전2020, 선사인 캠페인과 같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 목사단에서 이뤄지는 정책적 전략을 의미한다.

비전2020은 1996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972년의 ‘전군의복음화운동’ 이후 ‘전군신자화후원회’, ‘군복음화 후원회’를 거쳐 1999년부터 현재의 ‘군선교연합회’가 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을 진행되어왔다(오덕교, 2004).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비전2020 전략은 기대했던 소기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그래서 선사인 운동이라는 새로운 선교전략이 수립되었다. 선사인 운동은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대 사고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기독교실천운동이다. 이러한 군선교 전략은 비전2020에서 선사인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양적 전략에서 질적 전략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 선교가 과연 젊은이의 종교 선택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종교비율을 종단조사를 통해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군대내 기독교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회사역과 군선교 정책은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 3. 군 선교전략의 연구방법

연구자는 군복무 가운데 장병들의 종교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군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혼합연구를 하였다.

첫째, 양적연구의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지난 2년간 종교가 변화를 추적 조사하여 입대에  
서 전역 전까지 종교가 어떻게 변화 혹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양적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장병들의 종교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행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는 장병들의 종교변화 혹은 유지를 하게 되는 이유를 면담을 통해 확  
인 한다. 종교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착안점을 살펴본다.

#### 4. 논문의 분석 결과 및 해석

##### 1) 종교의 변화 추이

이등병에서부터 병장에 이르기까지 연구 대상자들의 시기별 종교를 통하여 장병들의 종  
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1년 군 종교 전수조사의 기록에 의하면 전체 종교가 있는 비율은 48.3%, 무교가  
51.7%이다. 전체 종교와 무종교의 비율은 전수조사와 이 연구가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무교를 제외한 종교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54.30%, 불교  
26.93%, 천주교 17.96%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의 이등병 시점에서는 기독교가 67.80%, 불  
교가 15.25%, 천주교가 16.95%로 조사되었다.

이등병 시점에서 일병, 상병, 병장으로 변화면서 종교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등병에서 일병  
과 상병시점에 가면서 무교가 소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초기 신병교육대 등을 통해  
활발한 종교 활동에 의해 종교를 가졌지만 소속부대에서는 다양한 임무에 노력하게 되고  
조금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다소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병장  
이 되면서 다시금 초기의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는 늘어나고 무교는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양적 연구에 따른 종교 변화 설명요인

종교 변화에 따른 개인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 특성들이 종교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지 탐색하기 위해 종교 변화에 따른 3가지 비교 분석 집단으로 나누었다.

분석1, 무교를 유지한 집단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집단의 비교-소속부대에서 어떻  
게 하면 기독교로 장병들을 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줄 것으로 판단

기독교비율은 무교인 장병이 기독교로 변할 확률을 높여주며 훈련이 많을수록 무교에 남  
을 가능성이 높다.

분석2,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의 비교-종교를 가지지 않는 병  
사들과 기독교를 가진 병사들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

절망감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유지하게 하며 기독교비율은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  
다.

분석3, 기독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집단을 비교- 기독교였다  
가 무교로 바뀌는 병사들의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

자존감이 높고 소부대훈련이 강하고 많을수록 기독교에서 무교를 선택하게 되며 기독교비  
율은 기독교를 유지할 확률을 높여준다.

### 3) 질적 연구에 따른 종교 변화분석

종교가 입대 전과 신교대 등에서는 무교였으나 자대 배치를 받고 군복무를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발견하여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과 입대 전과 신교대에서 기독교였지만 군복무를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무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장병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군 생활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종교의 변화를 보이게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

\* 편안함 \* 긍정적인 마음 \*함께하기

####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화

\* 신앙성장이 안됨 \* 주말에도 계속되는 임무 \*쉽의 필요

이처럼 병사들이 기독교를 초기에는 선택하였으나 군 복무 가운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 정책적으로 전략 수립이 가능한 것도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5. 연구의 주요 결과 높았다.

첫째, 무교를 유지하는 병사의 수와 기독교를 유지하는 병사의 수가 각각 157명, 99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수와 기독교에서 무교로 변하는 수는 17명,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의 전체적인 수는 적을 수 있지만 이들의 변화를 통해 전도 가능 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 362명 중에 36명 정도인 10%는 종교가 바뀌는 것임으로 이들에 대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많은 비율로 기독교를 유지 혹은 전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종교변화에 대한 설명요인의 분석은 무교를 유지하는 집단과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집단의 비교에서 소속부대의 기독교비율, 소부대훈련이 각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비율이 높을수록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며 훈련이 많을수록 무교를 유지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 종교의 변화는 무교에서 기독교로 변화게 되는 이유는 기독교를 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긍정적 마음, 함께하기가 나타났다. 기독교에서 무교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신앙이 성자되지 않는 것과 주말에도 지속되는 임무, 쉽의 필요로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연구자는 군 선교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종교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에 대한 군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소속부대의 기독교비율에 따른 전략적 군 선교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의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자존감과 절망감의 영향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

넷째, 편안함과 긍정적 마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훈련으로 인해 생기는 기독교의 이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인정하며 제언을 몇 가지하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일반화를 하는데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질적 자료 해석과정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국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사도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논평자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글을 논평하는 데는 역부족임을 인정합니다.

군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군선교에 현장에 참여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 논문을 바라볼 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훌륭한 논문이라고 평가합니다.

1. 이 논문이 연구자가 논문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제언한 방식의 논문이 더 객관성이 확보되고 더 대상이 많아지고 자료가 더 풍성해져서 단순히 연구로 그치지 않고 연구의 작은 열매가 군선교 전략의 실제적인 지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 군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아주 유익한 군선교의 전략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3. 분석의 기법과 연구 자료가 연구자의 직접 수고한 결과물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4. 매우 실제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연구물로 평가된다.

5. 10%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장병들을 위한 선사인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의 제안이 아쉽다.

## 참고문헌

- 권오민 (2011). “신세대 입영장병들을 위한 군선교 전략.”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권창모·김성훈 (2014). “군 부적응 병사 치유를 위한 비전캠프 3.0의 효과성 검증.” 『국방정책 연구』 30(3). 227-253
- 김성훈 (2015). “요인분석을 통한 육군 군종장교의 인식검사 타당화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28(2). 78-105.
- \_\_\_\_\_ (2016). “중단 데이터를 활용한 군선교 정책 전략.” 『장신논단』 . 48(2). 331-358.
- 남송현 (2007). “Vision2020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군선교의 선교학적 분석 : 입대 전 신앙인으로 2000년 이후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서경환, 정성진, 구지현 (2005).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7(4). 1077-1095.
- 오덕교 (2004).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군선교신학』 . 1. 126-155.
- 이석우 (2010). “종교 다원화 군 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선교와 신학』 . 26. 141-179.
- 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 (201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0차정기총회보고서·회의안」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 Donahue, M. J., & Benson, P.L. (1995). “Religion and the well-being of adolescent.” *Journal of Socail Issue*, 51, 145-160.
- Hu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39-49.
- Morse, J. M., & Niehaus, L. (2009). *Mixed method design: principles and procedures*.
- 김미영, 정승은, 차지영 역 (2012). 『혼합방법설계』 . 서울:한누리.